

예술가와 함께하는 '어린이목수축제'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는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간 광주지역 4~6학년 어린이 70명을 대상으로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일대에서 노작예술캠프 '어린이목수축제'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의 예술가와 함께 어린이 스스로 짓고 만드는 노작형 예술캠프를 운영해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다. 목공기술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습득부터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협업하는 공동작업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오는 28일에는 예술가와 참여어린이가 만나 어떤 공간을 만들지 아이디어를 나누는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하고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들의 상상이 담긴 미래의 학교 공간을 짓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또한 캠프 이틀째인 10월 5일에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와 연계하여 더욱 다채로운 시민참여형 축제를 즐길 수 있으며, 오후에는 완성된 공간에 참여어린이 가족, 친구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간 광주지역 4~6학년 어린이 70명을 대상으로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일대에서 노작예술캠프 '어린이목수축제'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목수축제. /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문화재단, 노작형 예술캠프 어린이목수축제 운영 광주시청 앞 야외음악당 일대서 내달 4~6일까지 진행

를 초대하는 목수가든파티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

영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기획자 정민룡(북구문화의집), 백민(놀이패션명), 이세현(작가) 3인의 기획단과 7인의 지역 예술가(신양호, 박문중, 이재문, 백상욱,

박성완, 이재호, 배수민)와 함께한다. 짜릿한 경험과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모험놀이, '어린이목수축제' 참가신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내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참여자가 직접 자필 작성한 신청서를 오는 23일까지 이메일(gjarte@gjcf.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훈 기자 rkdals@

상그릴라, 무욕의 땅 김해성 초대전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광주신세계 1층 신세계갤러리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는 세계각지를 여행하며 그곳에서 만난 인물들과 이야기를 화사한 색감으로 표현하는 김해성 작가의 초대전 '상그릴라, 무욕의 땅'을 오는 19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신세계갤러리에서 개최한다.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온 듯 독특한 의상의 인물들이 캔버스에 그려져 그들이 생활하는 자연, 함께 사는 동물, 현지인들의 생활 풍습과 문화를 알 수 있는 요소들이 그림 속에 담겨 있다.

작가는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생활하는 지역에서 새로운 문화와 풍경을 접하고, 그 장소에서 머물며 작가의 창작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기도 하고, 작가가 갖고 있는 인생관, 즉 행

복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라다크와 같은 여행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행복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김해성 작가는 "다양성이 자연 생태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인류의 문화에 있어서도 다채로움과 서로의 다른 점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더 풍요롭고 조화로운 발전의 실질적 기초가 된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의 의미와 역할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서로의 근원적 욕구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하는 태도에서 오는 따뜻한 마음과 풍요로움이 그 미소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자연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와 자연 사이의 숭고한 가치 발견을 통해 그림 속 인물들과 같은 미소를 찾고자 한다.

김해성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했다. 개인전 22회 및 600여 회의 단체전 참여하였고,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장작레지던시 프로그램에 1기로 참여했다. 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및 '선과 색'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자세한 문의는 갤러리 데스크 (062)360-1271로 하면된다.



김해성 작 '꽃 피는 아가씨'. /오복 기자 boh@

판소리 스타 발굴 산실... 임방울국악제 내일 '화려한 막'

23일까지 ACC 일원서 학생·일반·명창부 부문별 경연

우리나라 대표 국악제인 임방울국악제가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임방울국악제는 국악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국악 신인 발굴육성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국악 축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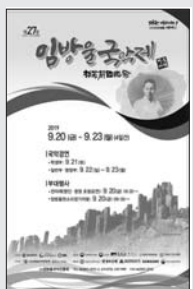
올해 대회는 광주광역시 주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1을 비롯한 8개 경연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국악경연과 더불어 문화시민들이 전통국악예술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전야제, 임방울판소리장기자랑 대회 등도 진행된다.

먼저 본 국악제 경연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학생부는 판소리, 기악(관악, 현악), 무용부문에 있으며,

일반부는 판소리, 농악, 기악, 무용, 시조, 가야금병창, 퓨전국악 경연이 실시된다. 또 판소리계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명창부 경연도 열린다.

첫날인 20일 광주향교 유립회관에서 순수 아마추어 국악인들의 잔치인 '임방울판소리장기자랑대회'가 개최되며, 금, 은, 동, 인기상, 장려상 등 입상자 50명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국악인 김성녀 명인의 사회로 진행되는 전야제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안숙선 명창이 국악 임방울 선생의 애창곡 '춘향가 중속대머리'를, 전북도립창극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조통



달 명창이 '호남가'를, 제13회 임방울국악제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찬미 명창이 '추억'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본선은 23일 낮 12시30분부터 국내 최고의 국악 명인을 발굴하는 판소리 명창부, 기악, 무용부 문 경연으로 운영된다.

본선에서는 판소리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해 각 부문별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자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영예의 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상금 4000만원, 1000만원

상당의 순금 임방울상(像) 트로피 등이 수여된다.

이밖에도 명창부 최우수상(조선일보 방일영상) 2000만원, 농악일반부 대상(국회의장상) 1000만원, 농악일반부 최우수상(광주광역시장상) 700만원, 판소리, 기악, 무용, 가야금병창, 시조, 퓨전국악 일반부 최우수상 각 400만원 등 총 1억98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본선 대회는 SBS TV로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박항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임방울국악제가 해를 거듭하면서 명실공히 전국 최고대회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국악축제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성대한 국악축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광주공연마루에서 만나는 매일 오후5시 '흥겨운 소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등 공연

광주공연마루에서 흥겨운 국악공연을 펼치고 있는 '광주국악상설공연'이 9월 셋째주에도 한국무용, 정악 및 대취타, 창극, 국악관현 등 다양한 국악의 향연을 펼친다.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존회 광주호남지부가 18일 공연의 막을 올린다. 피리정악과 대취타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된 전통중중음악이다. 임금의 행차, 군대행진 연주곡인 '대취타'를 비롯해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 12가사 중 하나인 '죽지사'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조선 숙종 때의 문신인 도암 이제가 만들었으며, 향토의 경치와 인정과 풍속 등을 노래한다.

19일은 광주시립창극단이 공연한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일과 21일 이틀간 공연한다. 20일은 굿거리장단풍의 밝은 곡으로 맑은 가을하늘과 코스모스를 연상케 하는 합주곡 '플러피 투 더 스키어'를 들려준다.

21일은 피아니스트 양방언이 작곡한 곡으로 호방한 태평소의 선율과 경쾌한 리듬이 어우러진 합주곡 '프론티어' 등을 공연한다. 매일 오후 5시(일, 월 휴관), 지평동 광주공연마루에 가면 흥겨운 우리 소리를 만날 수 있다. 관람은 전석 무료이고, 지정좌석제로 운영한다.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613-8379)를 통해 좌석을 예약하면 된다. /박정오 기자 jopark@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내가 지키는 가스안전
행복되어 돌아온다